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고 귀농하세요”

화순군,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사평풍류마을·노치마을·백운마을 3곳 무료 지원

화순군은 도시민이 귀농·귀촌에 앞서 농촌 생활과 농업을 먼저 경험하고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운영하는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일반형 3곳, 특화형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형은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14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고 농촌 생활, 현장 체험, 농사 체험 등을 제공한다. 귀농에 앞서 5~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다.

운영 마을은 역사와 국악이 깃든 ‘사평풍류마을’, 백아산과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노치마을’, 흰 학이 구름처럼 마을을 돈다는 의미에서 품고 있는 ‘백운마을’ 3곳이다. 숙박,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지원된다.

특화형은 전하제일경 화순적벽 마을로 유명한 이서면 아사마을의 뽕모실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 18~55세 이하 도시민이 20~9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1곳에서 운영 중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화순읍 들국화 마을에서 진행된다. 30~180일까지 장기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4월 5일~11월 20일까지 운영되며, 운영 기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에 참여한 34명 중 5명이 화순에 귀농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선정된 마을



마다 특색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참여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며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 귀농·귀촌에 관심 있거나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신청은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누리집(<https://live.jeonnam.go.kr>)에서, 화순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returnfarm.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먼저 살아보기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061-379-5444)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원예산업 평가 2년 연속 최고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통합마케팅 조직 산지유통활성화자금 30억 원(무이자 용자) 지원과 함께 산지 관련 사업 우선 선정의 기회를 얻게 됐다.

원예산업종합계획은 원예농산물 생산능가를 위해 조직화되고 규모화된 산지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생산유통 종합 육성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9개 지자체 등 141개소가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3개 분야(생산, 유통,

이행 노력) 10개 핵심항목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지표는 총 5단계로(A-E) 평가가 이뤄졌다.

곡성군은 원예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실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에 참여한 농가에게 유통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통합마케팅 조직에는 농협경제지주 곡성군연합사업단을 주축으로 지역 내 4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멜론, 딸기, 토란 등 원예농산물에 대해 170억 원의 취급실적을 달성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 개시 정책 제안·제도 개선·불합리 모니터링 등 앞장

나주시는 최근 농어업회의소 회의실에서 양성평등문화 조성과 여성 친화적 정책 발굴에 앞장설 제3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제3기 서포터즈는 지난 2~3월 공개모집, 추천을 통해 시민 30명이 선정됐으며 2년 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시정 제도 개선 건의, 일상 속 불편·불합리한 사항 모니터링, 양성평등문화 확산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발대식은 제2기 서포터즈 우수활동자 표창, 제3기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8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지역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남

녀 시민의 동등한 참여권 보장과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며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3기 서포터즈 단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이달 12일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여성친화마을 조성’, ‘여성동아리 육성’, ‘키움 품앗이’ 등 3개 분야다.

공모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5인 이상의 여성 동아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등이다.

기동채재본부

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국비 265억원 확보...침수·가뭄피해 ‘해소’

배수개선사업 136억원·수리시설개보수사업 129억원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황재준)는 담양, 응용지구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기본조사 지구로 선정 및 관상지구 등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지구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담양지구, 응용지구는 영산강 본류 및 오례천에 위치하며, 모두 시설하수재배지역으로 홍수위가 농경

지의 내수위보다 높아 자연배제가 불가능하여 매년 상습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었다.

담양지구는 2021년 세부설계 실시 2022년에 착공하여 수해면적 52ha에 국비 52억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2개소, 배수로 4조 1.6km를 설치할 계획이며, 응용지구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 후 수해면

적 120ha에 국비 84억원을 투입하여 게이트펌프 2개소, 배수로 4조 4.1km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상지구, 금월지구, 대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국비 12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세부설계 중이며, 2021년말에 본격적 공사에 착수하여 안전영농습수 및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황재준 담양지사장은 “주민 속원사업이 신규지구로 선정되기가

담양 지역구인 이개호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 및 최형식 담양군수, 김영신 부군수, 전라남도 관계자 등의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이룬 결실이며, 사업이 준공되면 해당지역 농업인의 안전영농은 물론 상습적인 가뭄·침수 등이 해소되고 농업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중점현안 적극 대응 나섰다

김영록 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이후 건의사항 시책 반영·추진 지시



구례군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5일, 김순호 군수 주재로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난 4월 1일 김영록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 후 속조치 등 군의 중점현안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도민과

의 대화 시 나온 건의사항들을 정리해 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제2회 군 추경, 75세 이상 백신접종 준비 철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비 등 현안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전남도와 정부의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예산순가를 감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예산확보 활동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마을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세부내용을 사전에 이장에게 충분히 전파하여 이해와 협조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할 것도 지시하였다.

특히,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군의 최대 현안인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성산재 버스노선 인가 철회, 수해피해의 사실 소명 등 쟁점이 된 내용이 열린 대화분위기 속에 논의되어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군은 이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도와 정부계획에 반영되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